

현대車, 국립현대미술관과 크리에이터 발굴

국내 차세대 크리에이터 성장 발판 마련

현대자동차가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차세대 크리에이터 발굴에 나선다.

현대차는 국립현대미술관(MMCA) 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국내 문화예술계 저변 확대를 위한 차세대 크리에이터 발굴 및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2년 간 준비한 '프로젝트 해시태그'로 장르 제약이 없는 협업 형태의 신개념 차세대 크리에이터 발굴 프로그램이다.

현대차는 2014년부터 이어온 국내 중진 작가 후원 프로그램 'MMCA 현대차 시리즈'와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 해시태그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차세대 크리에이터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문화예술계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명칭인 '프로젝트 해시태그'는 샵(#), 우물 정(井), SN S 언어, 검색 기호 등 국가, 세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되는 특수기호를 활용해 다양

한 영역의 유망주 선발과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을 담았다.

프로젝트에는 시각 예술부터 건축, 엔지니어링, 사운드, 디자인, 무용, 영화 등 문화예술 영역의 작가, 기획자, 연구자들이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주제와 장르의 제한을 넘은 협업을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창작물 제작을 독려하는 '프로젝트 해시태그'가 한국 미래 예술의 차세대 개방형 플랫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2팀, 총 10팀을 선정해 각 팀에게 창작 지원금 3000만 원과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전시할 수 있는 쇼케이스 개최 기회를 지원한다. 또 해외 유수의 미술 기관 및 전문가들과 교류 및 멘토링 기회를 마련해 국내 유망 작가들의 글로벌 미술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공모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 목록 공개

롯데는 2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나다움을 질문하는 어린이책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안) 134권의 목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올해 1월부터 학계, 출판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도서위원회를 구성해 '나다움 어린이책' 정의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이번 토론회에서 나다움의 개념과 핵심 가치, 도서 선정기준, 선정

라는 매체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롯데와 여성가족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올해 1월부터 학계, 출판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도서위원회를 구성해 '나다움 어린이책' 정의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이번 토론회에서 나다움의 개념과 핵심 가치, 도서 선정기준, 선정



2일 진행된 토론회에 참여한 엄마와 아이가 도서를 살펴보고 있다.

도서(안)이 공개됐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6월 1일)



36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배우지만 못하다. 4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 6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72년생 검은 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84년생 억지로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37년생 마음이 시키는대로 움직이자. 49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61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루둔 일을 마무리. 73년생 올바른 처신은 구슬을 예방. 85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38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50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62년생 밤로 뛰는 일을 하라. 74년생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 86년생 그리운 사람을 만날 운.



39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는 것이 좋다. 51년생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자손에게 조언을 구하라. 63년생 결과도 중요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75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87년생 과식을 주의.



40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52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 64년생 모난 둘이 정 및 범이니 자중. 76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원순도 모르게. 88년생 기운에 단번 내린다.



41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53년생 성공이 눈앞이니 포기하지 말고 노력. 65년생 삼재팔난이니 운전은 양보하면서. 77년생 고목에 꽂이 피니 좋은 일이 있다. 89년생 성과가 늦게 나타난다.



42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낭패를 보기 십상. 54년생 한번 잃은 신용은 회복하기 힘드니 작은 약속도 잘 지켜라. 66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지 마라. 78년생 마음의 여유를. 90년생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자.



43년생 조그만 실수가 손실을 불러오니 주의. 55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근심이 더해진다. 67년생 도와주고 있는 상대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79년생 비관하지 말고 더 노력. 91년생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44년생 남과 다툴 일이 생기니 이겨도 별 소득은 없다. 56년생 겉만 멀쩡한 일에 관심을 끄자. 68년생 흙탕물을 저절로 맑아지니 휴식이 필요. 80년생 본인에게 시간을 투자하자. 92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꼭 확인.



45년생 사람을 가지지 않고 만나면 복이 들어온다. 57년생 터널 속처럼 마음이 답답하다. 69년생 호사다마이니 잘 나갈 때 더욱 주의. 8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93년생 변화가 있어도 미미한 수준.



46년생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58년생 위기는 비상금으로 해결. 70년생 일을 잘 처리하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 82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94년생 하얀 거짓말이 필요.



47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 날. 59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달성. 71년생 걸어 다닐 때 질서를 먼저 지켜라. 83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원망을 듣는 법. 95년생 용이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풍栾!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2			
	7			5	8			
3		7			1			
	6	3						
8	3	2	1					
	2	5	4	8				
2	3		5	7	4			
1	8	3						
7	5	2	3	3				

9	5		7	2				
5				1				
1					7			
9		3	6			1		
8	2	5	3	6			6	
1		7	2				4	
9					6			
7						5		
1		3	1	4	9			

스도쿠 정답								
6	7	5	1	2	4	3	8	9
1	4	8	3	6	9	7	5	2
2	3	9	8	5	7	1	4	6
7	2	1	5	4	6	8	9	3
8	9	3	2	7	1	4	6	5
4	5	6	9	3	8	2	7	1
3	8	2	7	9	5	6	1	4
9	6	7	4	1	2	5	3	7
5	1	4	6	8	3	9	7	2

문제 제공=

아동 성상품화 멈춰야

기자 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고 속 엘라 그로스의 메이크업이나 옷차림이 또래 여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배스킨라빈스 측의 해명도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엘라 그로스의 메이크업은 일반 어린이 모델의 수준이며, 의상 역시 아동복 브랜드의 것이다. 결국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 가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통상적인 수준'의 기준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동 성상품화가 만연해지면서 성적 대상화의 기준마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꾸준히 있었다. 최근에는 속옷을 입은 아동 모델이 부적절한 포즈를 취한 사진이 게재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상품화 근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 성상품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자정의 움직임이 절실히 한다.

/min0812@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음덕을 쌓아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사람은 선해야 한다는 것. 그 어떤 환경의 시기가 와도 그래서 열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필자는 종종 생각한다. 밤하늘을 수놓는 그 많은 교회의 첨탑과 성당들 산 속에 있는 기도원과 절들 그림에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해질 수록 정신은 폐폐하고 상처가 크다는 것의 반증이리라. 옛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했다. 스스로의 양심에 반